

공공외교 관점에서 본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비교 분석: 한국과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민**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김재형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 초 록 >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단순한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으로만 보지 않고,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과 호주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두 나라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화해 왔는지, 또 그 과정에서 관계 형성의 논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은 유치, 관리, 취업·정주 연계, 관계 지속의 네 측면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검토 결과, 호주는 국제교육을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국가 전략의 한 축으로 다루어 왔고, 관리 체계와 교육 이후 경로를 비교적 긴밀하게 연결해 왔다는 점에서 강점을 보였다. 반면 한국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대학 위기, 산업인력 수요와 같은 국내 조건 속에서 유학생 정책을 빠르게 확대해 왔으며, 최근에는 취업과 정주 연계까지 정책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러나 여러 정책 주체와 제도가 병존하는 현재의 구조를 고려하면, 유학생 경험 전반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관리하는 체계가 충분히 안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한국의 유학생 정책이 공공외교적 잠재력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면, 유학생의 전 생애주기를 시야에 두는 관계지향적 관리 체계를 더 정교하게 다듬어 갈 필요가 있다.

핵심어: 공공외교, 소프트 파워,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 유치 정책, 호주 유학생 정책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의 연구 결과로 수행되었음 (RS-2022-00156318).

** 교신저자, hminlee@sogang.ac.kr

1. 서론

공공외교는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국가가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고, 어떤 가치를 공유하며, 어떤 방식으로 국제적 호감을 쌓아가는지와 맞닿아 있는 중요한 전략이다. 기존 외교가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에 더 크게 기대어 왔다면, 공공외교는 문화와 사회적 가치, 그리고 국가가 지향하는 비전을 외국 대중에게 전달하면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는 데 무게를 둔다(Cull, 2008; Gilboa, 2008; Signitzer & Wamser, 2006). 이렇게 형성되는 국가 이미지는 단순한 홍보의 결과가 아니다. 이후의 협력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외교적 신뢰를 떠받치는 자산으로 남는다. 특히 문화적 요소와 국가 브랜드처럼 연성 국력으로 설명되는 자원은 타국 대중에게 비교적 자연스럽게 호감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속 가능한 외교적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이러한 공공외교 전략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고등교육과 학생 이동이 단순한 교육 교류를 넘어 국가 이미지 형성과 장기적 관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공공외교와 국제교육을 다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Knight, 2014; Desai-Trilokekar & El Masry, 2022; Yun & Vibber, 2012).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유학생이 귀국 이후에도 유학 국가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해당 국가와의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Hayden, 2009; 이희성, 2012). 결국 유학생 유치는 교육적·경제적 효과에 그치지 않고, 한 국가의 문화적 매력을 바깥으로 확장하는 공공외교의 통로로도 기능한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Study Korea 300K Project는 이런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정책은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동시에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대응, 대학 재정 안정처럼 국가 차원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풀어 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교육부, 2023). 특히 유학생이 졸업 이후에도 한국 사회 안에서 진로를 설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포함하면서 유학생 정책은 단기적인 유치 성과를 넘어 장기적 경제·사회적 기여와 연결되는 방향으로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양적 확대에 치우쳐 왔다는 비판이 남아 있고, 유학생의 학업과 생활, 졸업 이후 진로를 함께 살피는 관리 체계도 아직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대학의 입장에서도 유학생 유치는 단순한 재정 확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역의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능성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이후연, 2024). 이런 점에서 유학생 유치는 지역대학과 지역 사회가 함께 생존을 모색하는 전략이자, 새로운 형태의 지역 공공외교로도 읽을 수 있다.

결국 정책 효과를 가르는 것은 유치 규모가 아니라 유학생의 실제 경험이다. 유학생이 학업과 생활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한국에서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언어 문제와 문화 차

이, 정착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으면 정책이 기대하는 성과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호주의 CRICOS(Commonwealth Register of Institutions and Courses for Overseas Students)와 PRISMS(Provider Registration and International Student Management System)는 중요한 사례를 제공한다. 통계에 따르면 호주 유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다양한 비자 경로를 활용해 장기간 잔류하며, 상당수가 기술 이민으로 유입되고 있다(Departmen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2025). 이는 유학 이후 취업과 정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유학생에게 강한 매력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국제교육이 공공외교와 소프트 파워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은 기존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유학생의 만족과 경험이 유학국가의 충성도 등과 연결된다는 점 역시 실증적으로 보고된 바 있다(Desai-Trilokekar & El Masry, 2022; Gultekin, 2020; Kéri & Hetesi, 2022).

따라서 한국이 호주의 제도를 참고해 유학생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일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다만 두 나라가 유학생 정책을 발전시켜 온 조건은 같지 않다. 호주는 다문화주의를 제도적으로 수용해 온 사회이고, 국제교육 또한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유학생 정책이 이민 및 노동시장 정책과 함께 전개되어 왔다. 반면 한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라는 내부적 압력 속에서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이 커졌고, 외국인 수용을 뒷받침할 사회적·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히 안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호주의 제도를 곧바로 모범 답안처럼 받아들이기보다 한국의 제도 환경과 대학 운영 현실에 맞게 적용 가능한 요소를 선별하는 접근이 더 현실적이다.

이 문제를 살피기 위해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단순한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이나 인력 확보 수단으로 보지 않고, 외국 대중과의 관계 형성 및 국가 이미지 구축과 맞닿아 있는 공공외교의 한 형태로 이해하고자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학생 수 자체가 아니라, 유학생이 입국 이전부터 재학 중 생활, 졸업 이후의 진로에 이르기까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수용국에 대한 신뢰와 호감, 이후의 관계 지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있다. 이런 점에서 유학생 정책은 유치 단계의 매력 제시, 재학 중 지원과 관리, 취업 및 정주 연계, 졸업 이후의 관계 유지가 분절되지 않은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본 연구는 한국과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함께 살펴본다. 관심의 초점은 두 나라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어떤 목표 아래 제도화해 왔는지에 있다. 아울러 유치, 관리, 취업·정주 연계, 사후 관계 유지의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도 비교한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러한 차이가 공공외교 전략과 정책 거버넌스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유학생 정책이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유학생의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관계지향적 정책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1)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

선진국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국가 전략의 한 요소로 활용해 왔다 (Galán-Muros et al., 2024). 글로벌 교육 시장의 확대 속에서 유학생 유치가 단순한 고등교육 정책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연계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유학생이 학문적 기여를 넘어 지역 사회 내 문화적·경제적 다양성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국가가 관심을 보이는 주요 배경으로 제시된다. 선행 연구 또한 유학생 유치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다각도로 설명하는데 노동력 확보의 가능성만이 아니라 국가 간 네트워크 형성, 소비와 서비스 수요 확대, 국가 이미지 제고, 이후 이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되기 때문이다(강동관 외, 2019).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국제정치적·외교적 차원에서도 주목할 만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논의된다. 유학생이 유학 국가에서 경험한 교육·문화적 접촉은 귀국 이후에도 해당 국가에 대한 인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Yun & Vibber, 2012), 특히 유학생 상당수가 비교적 높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귀국 후 사회적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점은 이들이 모국에서 정책적·여론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송문석·황기식, 2020). 이러한 맥락에서 유학 경험이 긍정적일 경우, 유학 국가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확산되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교육 부문의 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간 장기적 관계 구축의 잠재적 자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 결과는 유학생이 한국에서 어떤 체류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책과 사회 환경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유학생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이 수용 사회에 긍정적으로 동화될 수 있는 포용적 지원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 국제 교육 마켓 동향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글로벌 전략

유네스코 교육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약 2백만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7백만 명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위해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12, 2024; UNESCO, 2025). 특히 아시아 출신 학생이 세계 유학생의 과반인 약 55~58%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인구학적 성장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높은 열망과 글로벌 네트워크 진입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HoloniQ의 예측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제이동 유학생 수가 700만 명 안팎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수요 확대의 상당 부분이 아시아 출신 학생들에게서 비롯될 것이라고 보고한다(HolonIQ, 2019). 이와 함께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등 신흥지역의 고등교육 수요와 자비 유학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유학 목적국들은 아시아 유학생 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있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08년 발표된 ‘유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08). 일본은 산학 연계를 강화하여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입학에서 졸업, 취업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과 관광을 결합한 국가 브랜드이나 정기 유학 박람회 개최 등 공격적인 대외 홍보 전략을 병행하며 우수 인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김한나 외, 2016).

영국은 전통적인 강세 시장인 중국과 인도에 안주하지 않고,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유치 대상을 적극 확장하는 다변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UK Government, 2023). 이런 움직임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 위험을 줄이면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유학생 시장에서 안정적인 모집 기반을 넓히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영국은 여기에 더해 유학 이후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제도적으로 열어 두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졸업 후 취업비자 제도(Post-Study Work, PSW)이다. 이 제도는 졸업 이후 최대 2년 동안 구직과 취업 활동을 가능하게 해, 영국 유학의 실질적 매력을 높이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체브닝 장학금과 튜링 프로그램 같은 정부 주도 사업까지 더해지면서 영국은 국제교육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와 정책적 경쟁력을 함께 유지하려 하고 있다.

3. 이론적 배경

1) 공공외교와 외국인 유학생 정책

공공외교는 더 이상 정부 간 공식 외교에만 종속된 보조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오늘날 공공외교는 외국 대중을 상대로 국가의 가치와 이미지를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신뢰와 호감을 축적해 가는 대외 전략으로 이해된다(Cull, 2008; Gilboa, 2008).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국가 이미지를 알리는 일이 아니다. 외국 대중이 한 국가를 어떤 사회로 인식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인식이 이후의 관계 형성과 협력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공공외교의 핵심 문제로 떠오른다. 이런 점에서 공공외교는 일방적 메시지 전달보다 관계 형성과 상호 이해의 축적 과정에 더 가깝다. Cowan과 Arsenault(2008)가 공공외교를 모놀로그, 다이얼로그, 콜라보레이션의 층위로 설명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가 이미지는 단순히 전달된 정보의 결과가 아니라, 반복적인 접촉과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국제 유학생은 이러한 공공외교가 실제로 작동하는 가장 구체적인 접점 가운데 하나다. 유학생은 단기간 방문객처럼 국가를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다. 일정 기간 동안 교육제도 안에 들어와 공부하고, 행정 절차를 경험하고, 일상생활을 꾸려가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다시 말해 유학생은 수용국의 제도와 사회를 추상적으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차원에서 경험한다. 이 점에서 유학생이 형성하는 인식은 단순한 방문 만족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 나라의 대학, 행정, 문화, 사회적 분위기, 일상적 상호작용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평가라는 점에서 더 오래 남고, 이후의 태도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Knight(2014)가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외교 전략과 연결해 설명하고, Atkinson(2010)이 교육 교류를 관계 중심의 공공외교 수단으로 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유학생 정책은 입학과 등록을 처리하는 행정 절차에 머물지 않는다. 한 국가가 외부 사람에게 어떤 제도와 어떤 일상을 경험하게 하는지가 이 정책을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유학생이 처음 통과하는 비자 절차, 입국 이후 마주하는 학교 운영 방식, 생활 지원의 수준, 졸업 뒤 진로의 가능성은 모두 그 나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점에서 유학생 정책을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유학생 수 자체보다 유학생이 어떤 경험을 하며 그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게 되는지에 주목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정책의 핵심은 유치 규모가 아니라 경험의 내용에 있다. 같은 규모의 유학생을 받아들였더라도 그들이 겪는 제도와 생활의 결이 다르다면 남게 되는 인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학생 관리의 질은 부수적인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대외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소프트 파워와 유학생 경험의 외교적 의미

앞선 논의의 연장선에서 Joseph S. Nye Jr. (2004)가 주창한 소프트 파워의 원리를 접목해 볼 수 있다. 그는 강제력이나 금전적 보상에 의존하는 하드 파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한 국가가 지닌 문화적 자산이나 정치·사회적 제도의 매력을 통해 외부의 자발적 동의를 구하는 능력을 소프트 파워로 규정했다. 특히 고등교육 영역은 바로 이 무형의 힘이 가장 역동적으로 발현되는 최전선으로 타국에서 수학하는 청년들은 단순히 전공 지식을 습득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이들은 대학 안팎의 행정 시스템을 거쳐 현지의 생활 생태계와 지역 네트워크를 온몸으로 부딪쳐 가며 유학 국가에 대한 총체적인 인상을 빚어낸다. 따라서 외국인 학생을 맞이하고 지원하는 일련의 제도는 대상국이 국제 사회에서 어떠한 품격의 국가로 각인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

실제로 국제 유학생은 교내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호스트 커뮤니티와 상호 작용하며, 이러한 경험은 문화적 적응과 유학생 경험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논의되고 있다(Ranabahu, 2024). 국내 연구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 적응은 일상생활 속 관계 형성과 상호문화적 경험의 누적을 통해 전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최승은, 2020). 이 점은 소프트 파워가 추상

적인 이미지나 대외 홍보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국 대중이 일상 속에서 직접 겪은 경험이 쌓이면서 형성된다(Nye, 2004). 국제 학생이 겪는 경험은 수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친 체류 속에서 반복되며 축적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인상보다 더 깊고 오래 남는 인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한 학습자를 넘어, 훗날 본국 사회에서 여론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양한 사회 영역을 잇는 연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이해되기도 한다. 실제로 외국 유학이나 교육 교류를 경험한 개인들이 귀국 이후 여러 사회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대외 네트워크를 유지한다는 점은 기존 연구와 최근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되었다(Scott-Smith, 2008; Snow, 2009; Sustarsic & Cheng, 2022). 바로 이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한 학습자가 아니라 훗날 본국 사회에서 여론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거나 서로 다른 사회 영역을 잇는 연결점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이해되기도 한다.

3) 경험의 축적, 서사의 확산, 그리고 관리의 문제

유학생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개인적 기억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유학생은 유학한 국가에서의 일상과 사회적 접촉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서사를 형성하고, 이 서사는 귀국 이후 가족, 동료, 지역사회,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반복적으로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다(Birindelli, 2023; Nada & Araújo, 2018).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정보 확산의 속도와 범위가 크게 넓어진 오늘날, 해외 체류 경험은 더 이상 개인 내부에 머무는 사적 기억으로만 남지 않는다. 오히려 집단적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원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최근 연구는 소셜미디어가 이러한 경험 공유를 가속화하고, 그 확산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매개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Forbush & Foucault-Welles, 2016; Sandel, 2014).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학생 정책의 효과를 단순히 유치 규모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 비슷한 수의 유학생이 들어오더라도, 실제로 어떤 학업 환경과 생활 조건을 경험하는지에 따라 유학 생활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빈약한 행정 지원이나 일상화된 배제는 수용국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초래하는 반면, 학업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은 유학생들로 하여금 해당 사회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만든다. 유치 실적이라는 정량적 지표 이면에 자리한 ‘경험의 질’이야말로 장기적인 외교 자산의 축적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낯선 타국에서 마주하는 언어 장벽이나 비자 문제, 주거의 불안정성과 사회적 고립감 등은 독립된 현상이 아니라 서로 복잡하게 얽혀 유학 경험 전체를 규정하는 복합적인 위험 요인이다. 실제로 단순한 행정 처리의 오류가 강제 출국이나 비자 취소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번지게 되면 이는 일개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 간 공공외교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직결된다

(이준희, 2023). 반대로 이용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와 상담 지원,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히는 프로그램은 유학생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이러한 체감이야말로 향후 대상국에 대한 우호적인 기억을 재생산하는 토대가 된다.

4. 연구 방법 및 분석 틀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과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비교하기 위해 문헌분석과 비교사례연구 방식을 활용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한두 개 제도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정책이 만들어진 배경, 제도의 운영 방식, 관리 구조, 졸업 이후 경로가 서로 맞물려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 연구는 정책 문서, 제도 자료, 공식 통계, 선행연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국과 호주는 모두 유학생 유치를 국가 차원의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지만, 정책이 출발한 배경과 운영 논리, 제도화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첫째, 한국과 호주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어떤 목표 아래 제도화해 왔는가 와 둘째, 유치, 관리, 전환, 관계 지속의 네 단계에서 어떤 제도적 차이를 보이는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차이는 공공외교 전략과 정책 거버넌스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자료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수집하였다. 먼저 양국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표한 정책 문서와 제도 자료를 검토하였다. 한국의 경우 교육부의 유학생 정책 자료, Study Korea 300K Project,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자 및 정주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다. 호주의 경우 교육부 국제학생 통계, CRICOS와 PRISMS 관련 자료, 국제교육 관련 정부 보고서, QILT 졸업성과 자료를 참고하였다. 여기에 외국인 유학생 정책과 공공외교, 소프트 파워의 관계를 다룬 국내외 연구를 함께 검토하였다. 또한 정책 변화의 맥락과 실제 운영상의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 언론 보도와 제도 설명 자료도 제한적으로 참고하였다.

본 연구는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과 호주의 유학생 정책이 형성된 구조와 운영 방향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의 전개 과정, 관리 장치, 졸업 이후의 취업 및 정주 연계, 장기적 관계 형성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아울러 유학생 규모, 출신국 분포, 졸업 이후 취업 성과와 같은 공식 통계도 보조적으로 검토하였다.

2) 비교 분석 틀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하나의 단일 제도로 보지 않고, 유학생이 처음 유입되는 시점부터 졸업 이후 관계가 이어지는 단계까지를 포괄하는 정책 과정으로 본다. 이런 관점에서 비교의 기준은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먼저 유치 단계에서는 국가가 어떤 교육 여건과 제도적 조건을 앞세워 유학생을 끌어들이는지 살핀다. 이어 관리 단계에서는 입국 이후 학업과 체류가 어떤 구조 속에서 지원되고 조정되는지 본다. 전환 단계에서는 졸업 뒤 취업이나 정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지, 또는 본국 귀환 이후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관계 지속 단계에서는 유학 경험이 장기적인 네트워크나 우호적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본 연구는 이 네 범주를 기준으로 한국과 호주의 정책을 함께 읽어 보면서, 양국이 외국인 유학생을 어떤 정책적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공공외교 전략과 어떤 방식으로 맞물려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5. 호주의 해외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호주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있어 대표적인 국제교육 강국으로 평가된다. 다만 호주의 사례가 흥미로운 이유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전통적인 초강대국은 아니지만 국제교육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 있다. 이런 점은 한국과의 비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국 역시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으로 논의되며, 문화, 교육,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소프트 파워를 확대하려는 전략을 추구해 왔다(Lee, S.-J., 2012). 따라서 호주가 가진 경쟁력은 국제교육을 국가 브랜드와 대외전략의 일부로 활용해 온 중견국의 사례라는 점에서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비교 대상으로 볼 수 있다(Byrne & Hall, 2011).

실제로 호주의 국제교육은 대규모 학생 유치보다 그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정책 구조와 제도적 관리 역량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호주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연말 누계 기준 호주에서 공부한 국제 학생은 846,321명이었고, 등록 건수는 1,058,040건이었다(<표 1> 참조). 여기서 등록 건수는 한 학생이 둘 이상의 과정을 등록한 경우까지 포함하므로 실제 학생 수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같은 자료에서 상위 5개 출신국 학생이 전체 국제 학생의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호주의 국제 학생 구성이 일부 주요 송출국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를 특정 국가를 의도적으로 선별한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구성은 영어권 교육시장으로서의 위치,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지리적 접근성, 기존 이동 경로, 학업 이후 경로에 대한 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하는 편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수치는 호주의 유학생 정책이 실제로는

<표 1> 호주 국제 학생 규모 및 출신국 구조

지표	수치	비고
국제 학생 수	846,321명	
국제 학생 등록건수	1,058,040건	복수 과정 등록이 포함
2025 신규 학생 수	202,882명	전년 대비 감소, 양적 확대보다 관리와 조정의 국면 시사
고등교육 부문 등록 증가율	+10%	고등교육은 여전히 성장세 유지
상위 5개 송출국 비중	57%	중국 23%, 인도 17%, 네팔 8%, 베트남 4%, 필리핀 4%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International student monthly summary and data tables (2025.12 기준)

몇몇 주요 송출국과의 인적 이동 구조 속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할 수 있다.

호주가 국제교육을 단순한 교육서비스 판매에 그치지 않고 더 넓은 대외관계의 맥락에서 이해해 왔다는 점은 그 역사적 전개에서도 확인된다. 선행 연구가 지적하듯, 호주는 콜롬보 플랜 시기부터 교육 교류를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관계 형성 수단으로 활용해 왔고(Lowe, 2011; Oakman, 2010), 이후 국제교육을 국가 이미지, 지역 협력, 경제적 이익이 중첩되는 영역으로 발전시켜 왔다(Byrne & Hall, 2011). 콜롬보 플랜을 통해 호주에서 수학한 이들이 귀국 이후에도 호주와의 개인적·전문적 연결을 유지했다는 논의는 교육 경험이 단순한 유학 이력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 관계 형성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Australian Government, 2015). 이런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 호주가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한 교육 수요자가 아니라, 향후 자국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잠재적 연결 주체로 바라보는 배경을 설명해 준다.

실제로 멜버른 대학교(13위), 시드니 대학교(18위),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19위) 등 호주의 주요 대학들은 최근 QS 세계 대학 순위(2025)에서 모두 Top 20 내에 포진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학문적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의 국제교육 경쟁력은 대학의 교육 수준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대규모 국제 학생을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이다. CRICOS(Commonwealth Register of Institutions and Courses for Overseas Students)는 국제 학생에게 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과정을 정부가 공식 등록하는 체계이며, 학생비자를 가진 국제 학생은 이 등록체계 안의 기관과 과정을 이용하게 된다. PRISMS(Provider Registra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는 교육기관이 학생의 등록 상태와 변경 사항을 정부 시스템에 보고하고 관리하는 체계로 기능한다. 이 두 제도는 단순한 행정 편의 장치가 아니라 대규모 국제 학생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누가 학생을 받을 수 있는지, 학생의 등록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학생비자와 학업 상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공적으로 관리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호주의 관리 체계는 국제 학생을 유치한 이후의 문제를 개별 대학의 책임에만 맡겨 두지 않고, 국가가 일정 수준의 관리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담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emporary Graduate visa 제도 또한 졸업 이후 일정 기간 호주에 체류하며 일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경로를 제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국제 학생 정책이 교육 단계에 머물지 않고 이후 경로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호주는 유학생 정책을 교육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점차 이민 및 노동시장 정책과 접점을 갖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왔다. 선행 연구는 1980년대 후반 이후 호주가 유학생 출신 인재를 장기적으로 호주 사회에 편입시키는 제도적 경로를 마련하였다(Birrell & Healy, 2010; Hawthorne, 2008). 졸업 이후 취업과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 기술 이민과의 연계 가능성, 학업 이후 경력 축적 경로의 제도화는 유학생을 일시적 체류자로만 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항상 일관된 성과를 낳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유학생 정책이 교육 단계 이후의 경로와 연결되었다는 점은 호주의 국제교육 정책이 단순한 모집 정책을 넘어서는 구조를 지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QILT(Quality Indicators for Learning and Teaching, 2025)의 2024 국제졸업생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졸업생의 전일제 취업률은 학위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학부 졸업생은 52.3%, 석사 졸업생은 77.5%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이러한 차이를 직무 연계성의 효과만으로 단순 해석하기는 어렵다. 전공 구성, 이전 경력, 연령, 체류 전략, 노동시장 수요와 같은 복합적 요인이 함께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수치는 호주의 정책이 특정 단계에서 더 성공적이라고 단정하는 근거라기보다 국제 학생의 성과가 교육 이후 단계까지 추적·평가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보여주는 자료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시 말해 호주의 국제교육 정책은 유학생 수의 확대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졸업 이후 노동시장 전환이라는 후속 단계까지 정책적 관심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2> 호주 국제졸업생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

지표	2024 수치	비고
국제 학부 졸업생 전일제 취업률	52.3%	교육 이후 노동시장 전환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음
국제 coursework 석사 졸업생 전일제 취업률	77.5%	고학력·직무연계형 과정에서 전환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음
국제 학생 졸업생 전반	내국인보다 낮은 임금·취업성과	호주도 '무조건 성공'이 아니라 전환 성과의 층위가 존재함

자료: QILT, 2024 Graduate Outcomes Survey International Report

물론 호주 역시 최근 국제 학생 규모를 보다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정책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주거 수용 능력 등 모든 성과를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2025). 그럼에도 호주의 사례는 유학생 정책을 단순한 유치 경쟁이 아니라 입국 이후의 경험과 졸업 뒤 경로까지 함께 살피는 연속된 정책 과정으로 다루어 왔다는 점에서 뒤에서 볼 한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정책 구조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6.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분석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빠르게 확대되었지만, 그 흐름을 단순한 국제화 정책의 연장선에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2000년대 초반 정부가 ‘보내는 유학’ 중심 정책에서 ‘받아들이는 유학’ 중심으로 방향을 바꾼 데에는 교육서비스 수지 적자와 심화되는 세계 고등교육 경쟁이 작용했다(김성은, 이교일, 2019).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충원 문제가 현실화되었고, 지방대학의 생존 위기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대응 전략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지역 소멸 우려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가 겹치면서 유학생 정책은 국제교류를 넘어 국내 구조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성격이 넓어졌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유학생 정책은 교육정책과 지역정책, 인력정책의 필요가 맞물리면서 발전해 왔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2001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2004년 Study Korea Project를 통해 유학생 유치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표 3> 참조). 초기 정책은 해외 네트워크 구축, 유치 홍보 강화, 대학의 국제화 지표 확대 등 외형적 성장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었다. 이 시기의 정책은 유학생이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보다, 얼마나 많은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가에 더 강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한국 고등교육이 국제적 경쟁력 확보와 외형적 국제화 성과를 동시에 요구받았다는 점을 반영한다.

하지만 양적 확대는 곧바로 관리의 문제를 드러냈다. 유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동안 불법체류, 중도탈락, 부실 관리 대학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고, 정책 현장에서는 유학생의 학업·생활 경험보다 등록 규모에 치우친 운영이 여러 한계를 낳는다는 비판이 축적되었다. 정부가 2008년 이후 질적 관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2011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를 도입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제도적 반영이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 시점부터 한국의 유학생 정책은 단순한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유학생의 수학 경험과 관리 체계를 함께 다루려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즉 초기에는 ‘유치’가 핵심이었다면, 이후에는 ‘유치·수학·관리’의 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필요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2015년 이후의 정책 변화는 이 같은 흐름을 한층 더 확장시켰다. 출신국 다변화, 지방대학 유학생 유치 지원, 정부초청장학생(GKS, Global Korea Scholarship) 제도 강화, 한국어 교육 기반 확충 등의 정책은 단순히 유학생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유학생 저변 자체를 넓히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팬데믹

시기에는 비대면 수업의 질 관리, 방역 및 건강 지원, 체류 안정성 문제가 새롭게 부상하면서 유학생 정책이 학업과 생활 전반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이후 2022년 이후 정책은 다시 양적 회복을 기반으로 질적 관리, 취업 연계, 정주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유학생 정책이 더 이상 유치 단계에만 머물지 않고, 교육 이후의 경로까지 시야에 두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표 3> 한국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전개과정(2001-2023)

No.	연도	정책
1	200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 방안
2	2004	. Study Korea Project 및 세부 추진 계획
3	2008	. Study Korea Project 발전 방안
4	2009	.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제재 방안 . 외국인 유학생 지원 관리 개선방안
5	2010	.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
6	201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선진화 방안
7	2014	.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 발표
8	2015	.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9	2018	. 외국인 유학생 학습 및 생활 지원 강화 방안
10	2020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학생 유치 및 지원 방안
11	2022	. 글로벌 교육 허브 구축을 위한 유학생 유치 전략
12	2023	.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및 유학생 취업 지원 강화

이러한 정책 전환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Study Korea 300K Project이다(<표 4> 참조). 교육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단순히 유학생을 모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이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더 나아가 취업과 정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 2023). 이 정책은 기존에 반복적으로 지적된 출신국 편중, 수도권 집중, 졸업 이후 경로의 제약을 동시에 완화하려는 시도로 Study Korea 300K는 단순한 양적 확대 계획이 아니라, 유학생 정책을 지역산업, 노동시장, 지방 대학 생존 전략과 연결하는 재구성의 성격을 띤다.

프로젝트가 제시한 다섯 가지 추진 방향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 유입 단계의 문턱을 낮추면서도 졸업 단계의 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초기 유치 중심 정책과 이후 관리 강화 정책 사이의 불균형을 조정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지역 산업 기반 유학생 유치 전략은 대

<표 4> Study Korea 300K의 주요 추진 방향과 정책적 의미

추진 방향	정책적 의미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문의 혁신적인 확장	특별지구 신설 및 입학장벽 혁신적 타파
지역산업에 필요한 지역맞춤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	대학-기업-지자체 간 유학생 유치 거버넌스 구축
첨단·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인재 전략적 유치	교육·연구의 질 제고
글로벌 교육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유학 저변 확대	한국어 보급확대 및 학생교류 등 잠재적 유학 수요 극대화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축 원스톱 유학정보서비스 제공

학 총원과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대응이며, 첨단·신산업 분야 중심의 전략적 인재 유치는 국가 인력 구조 변화와 연결되는 장기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어 교육 확대와 학생교류 활성화는 잠재적 유학 수요를 사전에 형성하려는 기반 정책의 성격을 지니며,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은 그동안 유학생 정책이 교육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사이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유학생 정책의 핵심 문제는 유입 구조의 편중과 졸업 이후 경로의 불안정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약 18만 명까지 증가했지만, 중국과 베트남 출신 학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특정 국가 의존성이 여전히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교육부, 2023). 이런 구조는 모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출신국 다변화와 교육적 다양성 확보, 위험 분산의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낸다. 지방대학이 유학생 유치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같은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졸업 이후 진로와 연결되는 경로가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 경로가 약하면 유학생의 경험은 지역사회나 국내 산업과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유학생 유치도 지방대학의 단기 대응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커진다. 그만큼 정책이 기대하는 장기적 효과도 제한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Study Korea 300K가 제시한 전 주기 관리 모델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대학, 지자체, 산업체를 연결해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은 기존 정책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졸업 이후 경로의 단절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지역 산업과 대학, 기업을 연계한 협력 모델을 시도하고 있고(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3),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도 유학생의 취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22). 지역특화비자 제도 역시 지자체 추천과 산업 연계를 바탕으로 체류와 취업 경로를 제도화하려는 장치로 도입되었다(법무부, 2023; 부산광역시, 2023). 이런 흐름을 보면, 한국의 유학생 정책도 이제는 유치 이후 단계까지 시야를 넓히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공식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교육부는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이후 성과를 별도로 제시하였고, 이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36,271명 가운데 취업자는 4,993명으로 취업률은 33.4%, 진학률은 15.6%로 집계되었다(교육부, 2025). 이는 한국의 유학생 정책이 더 이상 단순한 유치 단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육 이후의 전환 성과를 정책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통계는 호주의 QILT처럼 국제학생을 독립된 정책 집단으로 설정하여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체계라기보다 전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안에서 외국인 유학생 항목을 별도로 집계하는 방식에 가깝다. 따라서 한국 역시 관련 성과를 공식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유학생의 교육 이후 경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곧바로 안정적인 성과가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이 마주한 문제는 유학생 수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늘어난 유학생의 졸업 이후 경로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느냐에 있다.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유학생의 전공 및 역량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남아 있고, 고급인재 유치라는 정책 목표 역시 실제 직무 구조와 충분히 맞물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학생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졸업 이후 안정적으로 취업하거나 정착할 수 있는 산업 기반과 생활 여건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지금의 한계는 정책이 없어서라기보다, 이미 마련된 여러 정책 요소가 서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호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호주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국가 전략 자원으로 다루었고, CRICOS와 PRISMS를 통해 유학생 관리, 비자, 학업 정보를 하나의 흐름 안에서 연결하는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반면 한국의 IEQAS와 비자 관리 체계는 유사한 기능을 일부 갖고 있음에도, 실제 운영에서는 부처 간 정보가 흩어져 있고 대학 현장의 행정 부담도 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역할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더 정교한 관리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면, 호주의 제도를 그대로 옮겨오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국의 행정 구조와 대학 운영 현실에 맞게 조정 가능한 요소를 가려내고, 이를 단계적으로 연결해 가는 접근이 더 현실적이다. 법무부, 교육부, 지자체, 대학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정비하는 일 역시 단순한 기술 개선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권한 배분, 개인정보 보호, 행정 인력 운영 같은 제도적 조건을 함께 손보아야 한다. 취업 연계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설계하는 방식보다, 지역 산업 수요와 대학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협력 구조 속에서 풀어나가는 편이 실제 정책 효과에 더 가까울 수 있다.

이제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외형적 규모를 불리는 데서 벗어나, 유학 생활 전반의 질적 수준과 학업 종료 후의 진로까지 포괄하는 거시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Study Korea 300K'는 이 같은 기조 변화를 구체적인 제도로 엮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각 정책 요소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대학, 산업, 지역사회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고 협력하는지에 있다. 한국의 유학생 정책이 공공외교적 잠재력과 국내 정책적 필요를 함께 실현하려면, 유학생을 단순한 충원 대상이 아니라 장기적 관계 형성과 사회적 연결의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분명해져야 할 것이다.

7.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가 확인한 핵심은 한국과 호주가 모두 외국인 유학생을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그 정책을 이해하는 방식과 제도를 작동시키는 논리는 같지 않다는 점이다. 호주는 국제교육을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국가 전략의 일부로 다루면서, 유학생의 유치와 관리, 졸업 이후의 전환, 관계 지속을 하나의 흐름 안에서 연결해 왔다. 반면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유학생 정책을 빠르게 확대했지만, 그 배경에는 인구 감소, 지방대학 위기, 지역소멸 우려, 산업 인력 수요와 같은 국내 구조 문제가 짙게 놓여 있었다. 이 차이는 결국 외국인 유학생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느냐의 차이와도 이어진다. 한쪽이 유학생을 장기적 관계 형성과 사회적 연결의 자원으로 다루어 왔다면, 다른 한쪽은 오랫동안 충원과 생존의 과제 속에서 유학생 정책을 발전시켜 온 측면이 강했다.

이번 비교는 유학생 정책의 성과를 단지 유치 규모만으로 판단하는 접근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유학생이 해당 국가를 어떤 제도와 경험을 통해 인식하게 되는가이다. 호주의 경우 CRICOS와 PRISMS를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는 유학생 경험을 제도적 신뢰 속에서 관리하는 거버넌스 장치로 기능해 왔고, 졸업 이후 취업과 체류 경로의 제도화는 유학생과 국가 사이의 관계를 일시적 체류를 넘어 보다 장기적인 연결로 확장하는 기반이 되어 왔다. 여기에 국제학생 규모와 출신국 구조, 졸업 이후 노동시장 전환성과까지 비교적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점은, 호주가 유학생 정책을 단순한 모집 정책이 아니라 관리와 평가의 대상까지 포함하는 정책 영역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역시 최근 Study Korea 300K Project를 통해 유학생 정책을 취업과 정주 연계의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이후 취업성과도 공식 통계를 통해 집계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여러 정책 주체와 제도가 함께 작동하는 과도기적 구조 속에서, 국제학생을 독립된 정책 집단으로 장기적으로 추적·분석하는 체계는 아직 충분히 자리 잡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한국의 과제는 호주의 제도를 단순히 모방하는 데 있지 않다. 한국의 행정 구조와 대학 운영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유학생 경험의 전 과정을 보다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의 유학생 정책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유학생 정책은 더 이상 단순한 충원 정책이나 단기적 국제화 지표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입국 이전의 유치 단계부터 재학 중 학업 및 생활 지원, 졸업 이후 취업과 정주,

동문 네트워크 형성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산업계가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현재의 구조를 넘어, 유학생 경험을 중심에 두는 정교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GKS와 같은 장학·교류 정책, 지역 정주 프로그램, 산업 연계형 취업 지원을 서로 분절된 정책으로 운영하기보다, 친한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한국의 유학생 정책이 공공외교적 잠재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들이 한국 사회를 신뢰할 수 있는 경험으로 기억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의 중심축을 관계 형성에 두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한국과 호주의 사례를 통해 비교해 보았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유학생 정책이 교육 제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제도적 신뢰, 장기적 관계 형성에도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정책의 차이는 제도의 유무 자체보다 정책이 출발한 배경과 이를 뒷받침하는 거버넌스 구조, 그리고 유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와 맞닿아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만 본 연구는 정책 문서와 제도 분석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유학생 개인의 경험과 정착 과정이나 노동시장 적응 양상까지 충분히 다루지는 못했다. 이후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졸업생 추적자료 등을 통해 이러한 지점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9월 21일). 외국인 유학생 지원 관리 개선방안 [보도자료].
- 교육부 (2023, 12월 7일). 2023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50&boardSeq=97337&lev=0&m=0309&opType=N&page=1&s=moe&searchType=null&statusYN=W>
- 교육부 관계부처 합동 (2023, 8월 16일). 글로벌 교육선도 국가 실현을 위한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Study Korea 300K Project, 1-32.
- 강동관, 이규용, 설동훈, 임경택, 오정은, 김예진 (2010).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유학생 활용 방안 연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성은, 이교일 (2019). 한국 정부 유학생 교육 정책의 계보와 과제. 교육문화연구, 25권 5호, 61-78.
- 김태은 (2023).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Study Korea 300K Project’에 대한 소고. 문화와융합, 45권 12호, 945-956.
- 김한나, 우한솔, 이승호 (2016).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비교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 제6권 1호 (2026. 3)

구, 17권 4호, 311-337.

법무부 (2023). 지역특화형 비자(F-2-R)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대한민국 정부.

배진숙, 오정은 (2018). 법제적 측면에서 고찰한 중남미동포의 교육이주와 모국수학 경험. *다문화와 평화*, 12권 2호, 75-98.

부산광역시 (2023).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우수인재 모집 공고.

URL: <https://www.busan.go.kr/nbnews/1564119>

서울특별시 (2022). 30 Days in Seoul: 외국인 유학생 통합 지원 프로그램.

URL: <https://english.seoul.go.kr/30-days-in-seoul-seoul-integration-program-for-international-students/>

설정호 (2023, 6월 19일). 지방대 생존 키 쥔 외국인 유학생, 주거비 주며 모셔온다. *서울신문*.

URL: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3/06/19/20230619500145>

손덕호 (2024, 6월 23일). [정책 인사이드] IT.공학 유학생 23% 늘고 3명 중 2명은 정착 원해...외국인 정책 핵심으로. *조선비즈*.

URL: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4/06/23/IP77LHAYE5CUFBWHPA7XG5MNY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송문석, 황기식 (2020). 한국체류 외국인 유학생의 공공외교 강화전략 연구. *민족연구*, 75권, 108-141.

이은화 (2015). 한·중 양국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의 발전과 주요 제도 비교 연구. *중국학*, 53권, 161-184.

이준희 (2023. 12. 14.). [단독] 행선지 속인 채 공항으로... 유학생들 '납치' 출국시킨 한신대. *한겨레*.

URL: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19996.html>

이형민 (2015).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본 대학 PR. *Journal of Public Relations*, 19권 4호, 1-26.

이후연 (2024, 6월 19일). 학생 모집난에... 총장들 “등록금 인상보다 외국인 유치가 고민”. *중앙일보*.

UR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7438>

이희성 (2012). 중국 유학생에 대한 공중외교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 U-curve 이론의 단계별 전략 고찰. *언론과학연구*, 12권 2호, 451-477.

채원상 (2023, 5월 23일). 충남도와 중앙아시아 5개국, 지역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굿모닝충청*. URL: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573>

최승은 (2020).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열린교육연구*, 28권 1호, 143-167.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3). 대학-기업-지자체 협업을 통한 지역 중심의 해외인재 유치 방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Atkinson, C. (2010). Does soft power matter? A comparative analysis of student exchange programs 1980-2006. *Foreign Policy Analysis*, 6(1), 1-22.

- Australian Government. (2015). *Draft national strategy for international education: For consultation* (April 2015).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2025, August 4). *Managing a sustainable international education sector*. Ministers' Media Centre.
- URL: <https://ministers.education.gov.au/clare/managing-sustainable-international-education-sector>
- Birindelli, P. (2023). The experience of international students: Biographical narratives and identities. *Society*, 60(3), 372-387.
- Birrell, B., & Healy, E. (2010). The February 2010 Reforms and the International Student Industry. *People and Place*, 18(1), 65-80.
- Byrne, C., & Hall, R. (2011). *Australia's international education as public diplomacy: Soft power potential* (Discussion Papers in Diplomacy No. 121). Netherland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Clingendael'.
- Cull, N. J. (2008). Public diplomacy: Taxonomies and historie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1), 31-54.
-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2010). *International Students Strategy for Australia, 2010-2014*.
- Cowan, G., & Arsenault, A. (2008). Moving from monologue to dialogue to collaboration: The three layers of public diplomac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1), 10-30.
-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2025). *International students outcomes and pathways study*. URL: https://www.jobsandskills.gov.au/sites/default/files/2025-09/international_students_pathways_and_outcomes_study_report.pdf
- Desai-Trilokekar, R., & El Masry, H. (2022). The nexus of public diplomacy, soft power, and national security: A comparative study of international education in the U.S. and Canada. *Journal of Comparative &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14(5), 111-133.
- Forbush, E., & Foucault-Welles, B. (2016). Social media use and adaptation among Chinese students beginning to study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50, 1-12.
- Galán-Muros, V., Bouckaert, M., & Wang, M. (2024). Do countries aim to increase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in higher education? (UNESCO IESALC Policy Insight Series, No. 22). UNESCO International Institute for Higher Educ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Gilboa, E. (2008). Searching for a theory of public diplomac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1), 55-77.
- Gultekin, O. (2020). Inquiry on the role of international education in future diplomacy after Covid-19 pandemic.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in Higher Education*, 5(2), 146-154.
- Hayden, C. (2009). Applied public diplomacy: A marketing communications exchange program in Saudi Arabia.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3(4), 533-548.

- Hawthorne, L. (2008). *The Growing Global Demand for Students as Skilled Migrants*. Washington, DC: Migration Policy Institute.
- HolonIQ. (2019). *Global flows - 7 million international students by 2030*. HolonIQ.
- Kéri, A., & Hetesi, E. (2022). Is it only the university they are satisfied with? Foreign student satisfaction and its effect on loyalty. *International Review on Public and Nonprofit Marketing*, 19, 601-622.
- Knight, J. (2014). *Higher education and diplomacy* (CBIE Briefing Note). Canadian Bureau for International Education.
- Lee, S.-J. (2012, September). *South Korea as new middle power: Seeking complex diplomacy* (EAI Asia Security Initiative Working Paper No. 25). East Asia Institute.
- Lowe, D. (2011, October 16). *Colombo Plan: An initiative that brought Australia and Asia closer*. The Conversation. URL: <https://theconversation.com/colombo-plan-an-initiative-that-brought-australia-and-asia-closer-3590>.
-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2008). *Outline of the "300,000 International Students Plan"*.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 Nada, C. I., & Araújo, H. C. (2018). Migration and education: A narrative approach to the experience of foreign students in Portugal. *London Review of Education*, 16(2), 308-324.
- Nye, J.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Public Affairs.
- Oakman, D. (2010). *Facing Asia: A history of the Colombo Plan*. ANU E Press.
- OECD (2020). *Education at a Glance 2020: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URL: <https://doi.org/10.1787/69096873-en>
- OECD. (2024). *Education at a Glance 2024: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URL: <https://doi.org/10.1787/c00cad36-en>
- Quality Indicators for Learning and Teaching. (2025). *2024 Graduate Outcomes Survey international report*. <https://www.qilt.edu.au/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2024-gos-international-report.pdf>
- Ranabahu, N., & De Silva, S. (2024). International students' acculturation in host countries: A typology of intergroup and intragroup contac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02, Article 102012.
- Ruddock, P. (1999). The Coalition Government's Position on Immigration and Population policy. *People and Place*, 7(4), 6-12.
- Sandel, T. L. (2014). "Oh, I'm here!": Social media's impact on the cross-cultural adaptation of students studying abroad. *Journa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Research*, 43(3), 214-232.
- Scott-Smith, G. (2008). Mapping the undefinable: Some thoughts on the relevance of exchange programs with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1), 173-195.

- Snow, N. (2009). Rethinking public diplomacy. In N. Snow & P. M. Taylor (Eds.), *Routledge handbook of public diplomacy* (pp. 3-11). Routledge.
- Sustarsic, M., & Cheng, B. (2022). Public diplomacy and exchange programs at a secondary school level: Alumni experi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87, 119-130.
- TopUniversities (2025).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6: Top Global Universities*.
URL: <https://www.topuniversities.com/world-university-rankings>
- UK Government. (2023). *International education strategy: 2023 progress update*. GOV.UK.
URL: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ternational-education-strategy-2023-update>.
- Yun, S. H., & Vibber, K. (2012). The strategic values and communicative action of Chinese students for sociological Korean public diplomacy. *International Journal of Strategic Communication*, 6(1), 77-92.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Student Attraction Policies
from a Public Diplomacy Perspective:
Case Studies of South Korea and Australia**

Lee, Haemin*

(Ph.D. Student,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Sogang University)

Kim, Jae Hyung

(Ph.D. Student, Department of Real Estate,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international student recruitment policy not simply as part of higher education internationalization, but through the lens of public diplomacy. To do so, it compares the cases of South Korea and Australia, focusing on how the two countries have institutionalized their international student policies and how the logic of relationship-building has unfolded differently in each case. The analysis is organized around four dimensions: recruitment, management, employment and settlement linkage, and relationship continuity. The findings show that Australia has treated international education as part of its national strategy from a relatively early stage and has demonstrated particular strength in linking management systems with post-study pathways. South Korea, by contrast, has rapidly expanded its international student policy in response to domestic conditions such as demographic decline, the crisis facing regional universities, and labor market demand, while more recently broadening its scope to include employment and settlement linkage. However, given the current structure in which multiple policy actors and institutions coexis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an integrated system for managing the overall international student experience has been fully stabilized. The study therefore suggests that, for South Korea to more substantively realize the public diplomacy potential of its international student policy, it needs to further refine a relationship-oriented management framework that takes into account the entire international student lifecycle.

Keywords: *public diplomacy, soft power,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student recruitment policy, Australian international student policy*

투고일: 2026. 01. 12.

최종심사일: 2026. 03. 16.

게재확정일: 2026. 03. 27.

* Corresponding author, hminlee@sogang.ac.kr